

조리직의 업무환경과 건강

- 본고는 3~7차 근로환경조사¹⁾ 원시자료(2011~2023년)를 활용하여 조리직 종사자²⁾의 작업 환경과 건강 상태, 건강 관련 근무 환경을 타 직종과 비교해 분석하였음.³⁾
- 조리직 종사자가 근무하는 시간 중 진동, 소음 등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타 직종에 비해서 적은 편임.
 -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절반 이상 근무하는 조리직은 각각 9.0%, 6.7%로 타 직종에 비해서 낮음. 낮은 온도에서 근무하거나 화학·감염 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조리직도 타 직종에 비해 비중이 낮음.
 -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과정에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조리흠(cooking fume)이 배출되지만, 먼지나 증기를 흡입한다고 인식하는 조리직의 비중도 타 직종에 비해 낮음.
- 후드, 덕트 등 환기장치에 대한 산업안전기준 규칙이 개선되면서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직은 2023년 12.5%로 타 직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짐.
 - 일하지 않아도 땀이 흐를 정도로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직은 2011년 17.5%로 타 직종 1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조리직은 특정 근무 자세 및 행동을 하거나 감정의 노출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타 직종보다 매우 높음.
 - 2023년 기준 3명 중 1명(33.2%)이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로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 나머지 직종은 4명 중 1명에 해당함.

1) 한국근로환경조사는 산재예방정책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위험요인 노출 등 전반적인 업무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음. 2011년(3차) 이후 3년마다 5만 명의 취업자를 조사하고 있음.
 2)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3자리) 기준 조리사(441), 식음료 서비스종사자(442), 음식 관련 단순종사자(952) 세 직종을 조리직으로 정의하였음. 식문화 관련 전문가(297),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710)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3) 본고는 조리직으로 정의한 근로자와 타 직종을 비교해 분석하였으며, 직군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위험 요인 노출, 건강 상태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는 근로환경조사 최종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 10명 중 9명 이상(92.5%)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 서서 일하고 있음.
- 근무시간 절반을 앉아서 일하는 비중은 17.6%로 타 직종보다 낮음.
- 둘 중 한 명 이상(51.2%)이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을 하면서 일하고 있음.

○ 고객을 상대하면서 감정 노출이 발생하는 비율도 타 직종에 비해 높으며, 화가 난 고객을 상대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 역시 1~2%p 높게 나타남.

〈표 1〉 조리직 종사자의 물리적 위험 및 행동·감정적 노출 비중(근무시간의 절반 이상)

(단위 : 명, %)

	조리직 종사자			타 직종		
	2011	2020	2023	2011	2020	2023
조사자 수(표준화 가중치 사용)	3,180	3,739	3,893	46,854	46,799	46,302
물리적 위험 노출						
A.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6.3	8.3	9.0	16.9	14.4	14.7
B.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	8.4	4.6	6.7	11.7	8.3	10.1
C. 일하지 않아도 땀이 흐르는 높은 온도	17.5	9.3	12.5	11.7	8.3	13.1
D. 실내/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5.6	3.7	6.0	7.3	7.9	9.4
E. 연기, 가루, 먼지 등의 흡입	5.8	6.0	6.2	12.6	9.3	7.6
F. 유기용제에서 발생하는 증기 흡입	0.6	1.1	2.3	2.8	2.7	3.8
G. 화학 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접촉	0.6	1.0	2.2	3.8	3.1	4.2
H.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9.0	0.6	1.9	3.8	1.7	3.4
I.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접촉	0.4	0.3	1.9	1.7	1.5	3.0
근무 자세 및 행동적 노출						
A.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43.2	35.3	33.2	30.9	23.3	25.4
B.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옮김	3.8	2.5	4.5	4.7	3.3	6.4
C.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	26.4	16.5	17.8	18.6	13.1	15.0
D. 서 있는 자세로 일함	79.7	87.1	92.5	43.1	45.9	53.5
E. 앉아 있는 자세로 일함	-	16.1	17.6	-	55.7	60.8
F.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	69.2	62.5	51.2	51.9	48.5	39.9
감정적 노출						
A. 고객, 승객, 환자 등을 상대함	60.3	63.2	58.0	44.8	38.3	37.3
B. 화가 난 고객이나 승객, 환자를 다룸	8.4	6.6	9.8	6.6	5.6	8.8
C.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임	-	3.0	11.0	-	3.3	9.3

주 : 노출 비중은 근무시간의 절반, 근무시간의 3/4,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내내로 응답한 조사자의 비중을 합하였음.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3~7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 65세 미만 연령대 근로자를 대상으로⁴⁾ 조리직의 업무 관련 건강상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문제가 많음(그림 1 참조).

- 먼저, 업무 관련으로 허리통증을 가진 조리직은 2023년 기준 22.9%로 타 직종의 17.9%보다 5%p 높음.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발생함.
 - 2011년과 2014년 상지근육통(어깨, 팔 등)과 하지근육통(엉덩이, 다리 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40%, 30%를 넘었고, 2023년에는 각각 30.6%, 14.7%로 줄어들었으나, 타 직종에 비해 여전히 높음.
 - 2011~2017년 조사에서 우울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조리직은 0.3% 수준으로 타 직종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비중이 1.2%로 증가했음.
- 업종별로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 근로자 비중이 '두통, 눈의 피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서비스업 중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 기타 개인서비스업 다음으로 허리통증, 상지근육통 등 다양한 항목에서 건강상 문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 2023년 65세 미만 업종별 업무 관련 건강상 문제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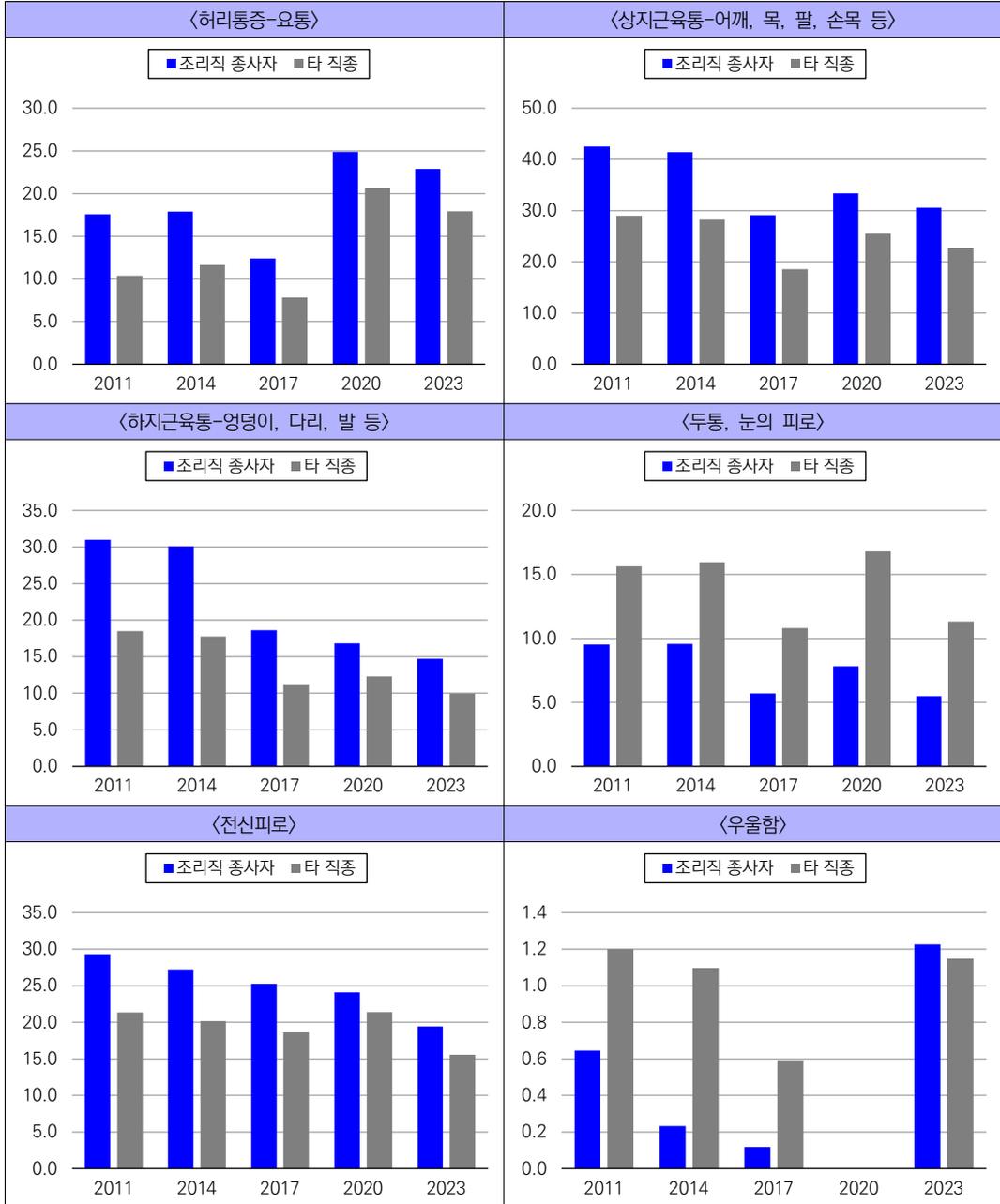
	허리통증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 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티로	우울함
전 산업	18.3	23.3	10.4	10.9	2.2	15.9	1.2
농림어업	45.3	45.3	30.1	9.3	2.7	1.9	1.9
제조업	18.1	22.7	10.0	10.9	2.0	14.8	0.8
건설업	26.2	33.2	14.7	11.3	2.4	24.0	1.3
도소매업	14.2	17.1	7.8	8.0	1.8	13.4	0.9
운수창고업	34.3	32.7	17.3	16.0	3.6	23.0	1.9
숙박 및 음식점	20.9	27.9	13.2	5.2	2.4	18.2	1.3
-음식점 및 주점업	21.2	28.2	13.2	5.1	2.4	18.4	1.3
정보통신업	8.2	17.9	5.3	17.5	2.8	11.4	0.8
금융보험업	10.1	14.2	4.8	16.5	2.7	11.2	1.2
전문과학 및 기술	8.7	16.8	4.2	17.1	1.9	9.3	1.1
사업관리·지원	23.6	27.6	13.6	8.7	2.4	17.1	1.3
공공행정	10.2	13.8	6.8	12.3	3.1	14.0	0.9
교육서비스	10.3	14.9	7.5	10.4	2.2	12.7	1.3
보건 및 사회복지	17.0	22.9	8.6	9.3	1.4	15.9	1.0
예술·스포츠, 여가	10.8	15.5	8.6	9.8	2.0	12.2	2.7
기타 개인서비스	26.1	39.7	14.0	10.9	1.8	20.7	1.1

주: 지난 1년 동안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조사자 중 업무 관련 여부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조사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7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4) 2023년 기준 65세 미만 조리직 평균연령은 43.4세, 타 직종은 44.1세.

[그림 1] 65세 미만 조리직 종사자의 업무 관련 건강상 문제 비율 추이

(단위 : %)



주 : 지난 1년 동안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조사자 중 업무 관련 여부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조사자 비중을 의미하며, 우울함은 2020년에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3~7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 조리직은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한 경험은 적고, 아프지만 나와서 일을 한 경험은 많음.
 -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을 한 경험이 있는 조리직은 2023년 3.5%로 타 직종 4.3%보다 낮음. 이 비율은 2017년까지 비슷했는데, 2020년부터 조리직의 결근 경험이 감소했음.
 - 아프지만 나와서 일을 한 조리직 비율은 타 직종보다 모든 조사에서 높게 나타남.
- 몸이 아프데도 결근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2.6명)가 전체 서비스업 수준(3.4명)보다 낮기 때문임.⁵⁾ 본인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건강상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마찬가지로 도소매업(2.4명), 기타 개인서비스업(1.8명) 모두 평균 종사자 수가 적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대체 근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반면, 사업관리·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9.4명으로 상대적으로 대체 근무가 가능함.

〈표 3〉 조리직 종사자의 결근 경험 및 몸이 아프지만 일을 한 경험 비율

(단위 : %)

		답변	2011	2014	2017	2020	2023
질문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건강 관련 문제로 결근한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조리직 근무자	결근한 적 없음		88.3	81.9	85.9	96.3	93.9
	1~4일		6.3	6.3	10.8	2.1	2.2
	5일 이상		5.4	2.4	3.3	1.4	1.3
나머지 직종	결근한 적 없음		89.9	82.0	87.0	95.6	93.3
	1~4일		5.9	6.3	9.8	2.5	2.4
	5일 이상		4.2	2.1	3.2	1.4	1.9
질문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프데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2011~2020) 질문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업무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프데도 일한 적이 있습니까?(2023)							
조리직 근무자	아프지 않았음		-	2.8	16.3	29.7	18.2
	없음		72.4	66.9	64.1	57.1	75.6
	1~4일		13.3	17.0	11.6	6.7	4.4
	5일 이상		14.2	10.4	7.4	5.2	1.1
나머지 직종	아프지 않았음		-	3.1	17.8	29.3	19.2
	없음		77.3	71.7	65.4	58.7	75.5
	1~4일		12.7	15.0	11.2	6.2	3.7
	5일 이상		9.8	7.5	5.2	4.5	0.8

주 : '아프지만 일을 한 경험'에 대한 질문 문항은 조사년도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3~7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5) 노동리뷰 동호(2025년 1월호), 「음식점 및 주점업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참고.

- 최근 요리 관련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의 흥행으로 요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2022년 1.5만 명 수준으로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해도 매우 적음.
 - 조리직 종사자는 면허증 발급 목적으로 감염병 검사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음.
 - 최근 조리흠을 산재 원인으로 인정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폐 CT 촬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선되고 있음.⁶⁾
 - 앞으로 건강상 문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근로자 수가 부족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건강진단·처방을 받고 치료를 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4〉 주요 산업별 특수건강진단 실시근로자 현황

(단위: 명)

	2011	2014	2017	2020	2022
계	977,409	1,410,335	2,023,574	2,212,769	2,453,466
제조업	794,802	1,046,890	1,186,983	1,184,097	1,240,584
건설업	64,018	85,421	133,824	189,993	284,389
도매 및 소매업	6,768	13,564	23,628	35,076	41,293
운수업	16,578	41,241	111,249	131,076	144,434
숙박 및 음식점업	1,355	4,384	13,890	14,404	14,5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14,890	44,259	133,698	152,547	156,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22,916	85,193	235,185	289,444	309,668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KLI](#)

(임용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2022), 「조리 Fume에 관한 해외 언론 및 연구 동향」, 『국제 안전 보건 동향』 4호.

6)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는 55살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 10년 이상의 현직 급식 종사자들이 저선량 폐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작성·보급하고 있음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2022).